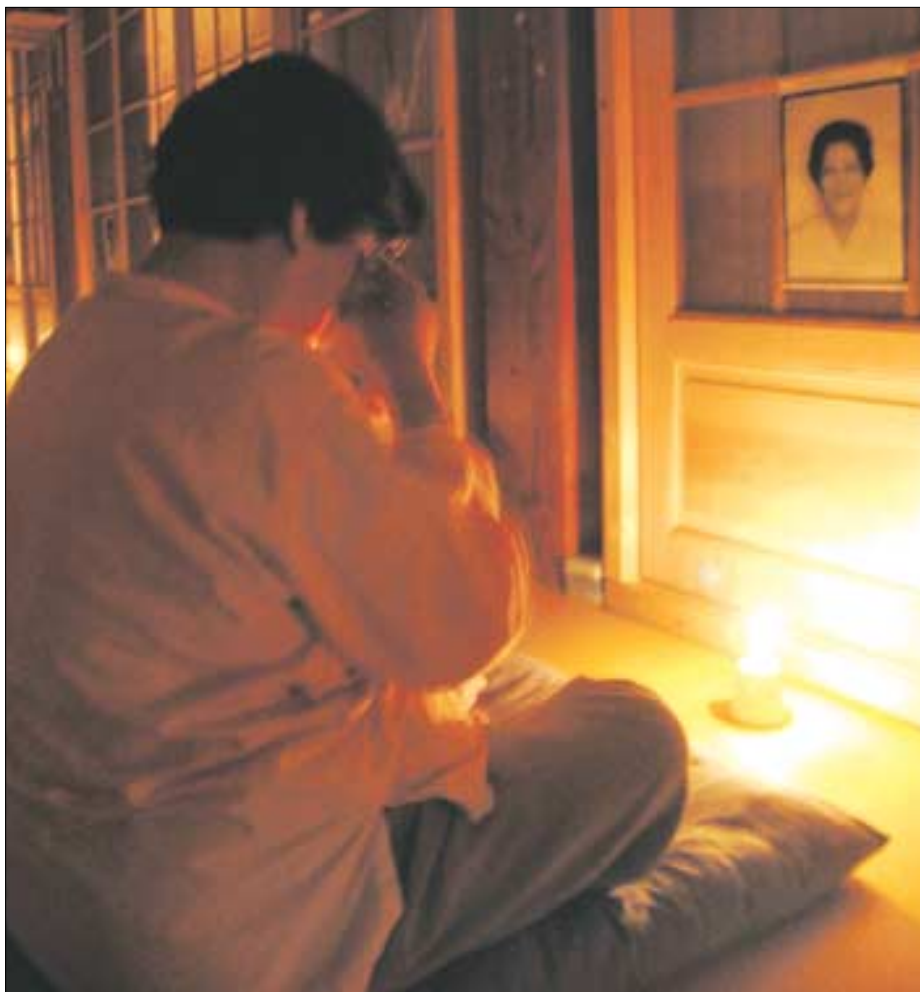


미움도 사랑도 모두 집입니다 홀가분히 내려 놓으세요



템플스테이 둘째 날 열린 죽음명상 자신의 영정 앞에서 유서를 써 보며 삶과 죽음을 성찰한다.

"죽었을 때 마누라 속 많이 썩었지"

템플스테이는 이름 짓기로 시작했다. 세상에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후회로 얼룩진 이름을 던져버리고 애정을 담백 담아 새 이름을 지어본다.
"제 이름은 복덕해예요. 복과 덕과 지혜를 다 갖고 싶어서 지어냈어요. 욕심이 많죠?"

"제 이름은 맨드라미예요. 들어오는 길가에 피어있는 맨드라미가 고와서 지었죠."
는개, 산조, 봄향기, 세실리아, 무심, 오솔길, 햇살 등 하나같이 멋진 이름을 지어놓고 설명을 서로 주고받았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맹세로 마음가짐도 새로이 해본다.



한사람을 두고 주위사람들이 돌아가며 칭찬하는 시간.



삼배를 받으며 নিজ사의 존귀함, 바로 내가 부처임을 깨닫는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즐거운 태화천변에서 여유시간을 가졌다.

9차 노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8월 26일 첫날 저녁,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시간의 진행을 맡은 이는 이성순 소장(심리상담센터 '노후가 아름다운 사람들').

이 소장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행에 관심 갖고, 성불하겠다는 원을 세워 놓은 줄로 알고 있어요"라고 운을 뗐 뒤, "하지만 마음에 한을 품고 있으면 마치 집을 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수행은 더딜 수밖에 없답니다. 먼저 마음에 응 어리를 다 털어내야 해요."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먼저 참가자들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든, 언제든 돌아가고 싶은지를 물었다.

치매에 중풍까지 앓은 시어머니를 6년간 모시면서, 형제간의 갈등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 허전한 마음을 공부로 달래기 위해 학생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 젊었을 때 6~7세 시절이 좋았으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고막을 다쳐 난청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70대 참가자는 "젊었을 때 마누라 속을 많이 썩었다"고 참회하고, "50대로 돌아가 잘 해주고 싶다"고 울먹이며 함께 아내를 꼭 껴안아 박수를 받기도 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마음이 한층 가벼워짐을 느낄때쯤 이 소장은 화제를 미래로 돌렸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 다가 올 미래, 즉 노후가 중요하다는 것.

이 소장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세요. 너무 힘들고 속상했던 시절이지만 모두 지나갔으니 이제 모두 내려놓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야합니다."라며 "밖으로 봉사하고, 내면적으로는 기도하며 다음을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둘째 날, 참가자들이 저녁 예불을 마치고 돌아온 연화당(수련장)에는 예기치 못한 광경이 전개됐다. 참가자 각자의 영정사진 18개가 벽에 붙어있었던 것.

죽음을 통해 나를 본다

참가자들은 각자 촛불 밝혀진 자신의 영정 앞에 앉아,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그대로 바라봤다.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와서 울고 있을까. 가족들 표정은 어떨까. 그때의 내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있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마가 스님은 유서를 쓰도록 했다. 여기저기서 울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쓴 유서를 등글게 모여앉아 소리 내어 읽어 보는데, 눈물이 먼저 쏟아져 읽기가 쉽지 않았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보아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너희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가는구나."

"엄마가 육성이 많아 너희들 마음 불편하게 했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것, 급게 말하지 못했던 것, 모두 미안하고 부끄럽다. 이제 너희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모두 후회스럽고 미안하다."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두 집입니다. 홀가분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내 노후가 편안해지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

템플스테이 마지막 날, 마가 스님의 당부가 이어진다.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줍니다. '잠깐 보고 말 사람'이라는 생각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주위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스님의 말이 끝나자, 불단 앞에는 세 개의 단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이 세 명씩 그 위에 오르고, 마가 스님과 묘은 스님 그리고 나머지 참가자들 모두가 이들을 향해 삼배를 올려 존경을 표했다.

삼배를 받은 참가자들은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다. 어릴 적 엄마의 품을 떠난 이후 존귀한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받아본 적이 얼마나 있던가. "스님한테 잘 받기는 평생 처음입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삼배에 대한 답례의 말이다.

노후의 삶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모든 순서가 끝나고 한 참가자의 제안으로 마가 스님, 묘은 스님과 강의를 맡은 이성순 소장을 앞에 모셔 삼배를 올렸다. "큰 스님이 되십시오." "많은 것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삶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커다란 가르침을 각자의 가슴에 아로 새긴 후 2박3일의 템플스테이는 회향했다. 참가자들은 이를 전 마곡사를 찾을 때의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어떤 참가자의 말대로 극락과도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내가 살던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과연 세상 속에서도 마곡사에서 다짐했던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갖고 떠나는 느낌들을
떠가기도 가질 수 있다면...
마곡사를 두고
바람을 두고
들소리 두고 갑니다. (참가자 맨드라미)

글 · 사진/마곡사·박익순 기자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갈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들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권관품부터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에 불과했던 산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라마의 숨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 지침으로 되살아 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최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랑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화상과 티베트 불자까지 젖어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매년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 입보리행론**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최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 제 5장 호계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 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A팀** : 12월 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 B팀** : 12월 3일 -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 장소 :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
 - 주관 : 여수 석천사 (전국스님 061-662-1607)
 -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다시 보는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명리학 용신분석 기초를 모아 핵심만 정리!
알기쉽게 풀이한 교과서적인 한국 최초의 역학 지침서!

이책의 특징

- 삼대(三代) 복신 개념 도입
- 주용신(제1용신)과 부용신(제2용신) 개념 설정
- 격(格)은 월령의 본기만 인정한다.

이선종 지음 / 사륙배판 / 484쪽 / 정가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그림 당사주 대전 |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김백만 편저/40,000원 | 4x6배판/이선양, 전호일 공저/25,000원 | 신국판/양정분/김성진 지음/30,000원 | 신국판/양정분/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 입금계좌: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활하게 이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신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최근 이혼률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정분 / 817쪽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쁨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흥을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경술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